

인류의 문명은 건설노동자의 손끝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수로, 조선의 궁궐과 성곽까지 웅장한 건축물의 그림자에는 언제나 이름 없는 노동자의 땀과 숨결이 스며 있었다. 그러나 역사는 늘 건축물만을 기록했을 뿐, 그들의 삶을 기록하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후 건설현장은 더욱 거대하고 복잡해졌지만 건설노동자의 자리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철도와 항만, 공장과 도시가 세워지는 동안 그들은 가장 먼저 위험을 감당해야 했고 가장 늦게 보호받았다.

우리나라에서 건설노동자의 역사는 산업화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선명하다. 1960~70년대 고속도로와 제철소,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때 수많은 노동자가 하루 품삯에 목숨을 걸었다. 이후 노동조합의 결성과 제도의 개선이 있었지만, 하청과 일용직 구조 속에서 안전과 건강보호는 여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았다. 최근에는 고령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가 새로운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노동자는 단순히 도시를 세우는 손이 아니다. 그들의 건강과 안전은 곧 사회 전체의 토대다. 추락과 분진, 유해물질, 불규칙한 생활은 개인의 인내로 감당할 일이 아니라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 이제는 건설노동자를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그들이 존중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사회를 세울 수 있다. 건설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문명을 세운 건설노동자



Contents

SEPTEMBER
2025

Vol. 449

통권 449호(2025년 9월)
등록일 2015년 1월 13일
등록번호 청주 라00059
간별 월간
발행인 백현기
발행일 2025년 9월 1일
발행처 대한산업보건협회
전화 043-540-8500
기획·디자인 문화공간(02-2266-1897)

월간 <K-산업보건>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며, 협회 홈페이지(www.kiha21.or.kr)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사항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담긴 내용은 월간 <K-산업보건>이나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외홍보국(☎043-540-8432~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SSUE PAPER+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보건

- 04 안전망이 취약한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개선과제
- 08 건설노동자의 건강은 괜찮습니까?
- 12 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 통계
- 14 이슈체크
건설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
- 18 꼭 짚어 말하자면
대통령의 경고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다

PEOPLE & INSIGHT+

- 20 성과 브리프
산업보건의 새로운 신뢰 기준을 말하다
현장 실무자 특별 좌담회
- 28 현장을 바꾸다
대선주조(주) 안전환경팀
- 32 이달의 산업보건인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산업안전팀 황규상 주무관

HEALTH & TOGETHER+

- 36 그 사람의 직업병
영화 <두 세계 사이에서> 속 야간노동자의 직업병
- 38 산업보건 Q&A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 40 천천히 걷기
뮤지엄 산 페이퍼갤러리
- 44 용어 바로알기
건강을 지키는 '야간작업' 가이드
- 46 KIHA Cartoon
건설노동자의 취약한 노동 현장

KIHA NEWS+

- 48 KIHA NEWS
- 54 대한산업보건협회 안전보건 컨설팅
- 56 KIHA에듀센터 교육 일정 안내
- 58 독자마당